



중국리포트

KMI CHINA REPORT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중국연구센터 (Korea Maritime Institute China Research Center)
 中国上海市 长宁区 遵义路 100号 南丰城 A-1803
 Tel. +86-21-6090-0395~6, Fax. +86-21-6090-0397

제20-12호
 2020년 7월 15일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 중국 18개 자무구 지역의 GDP 현황
- ▶ 이슈 포커스 : 하이난 자유무역항과 양산특수종합보세구 설립 현황
- ▶ 동향 & 뉴스

■ 2019년 중국 18개 자유무역시범구 지역 GDP 및 1인당 GDP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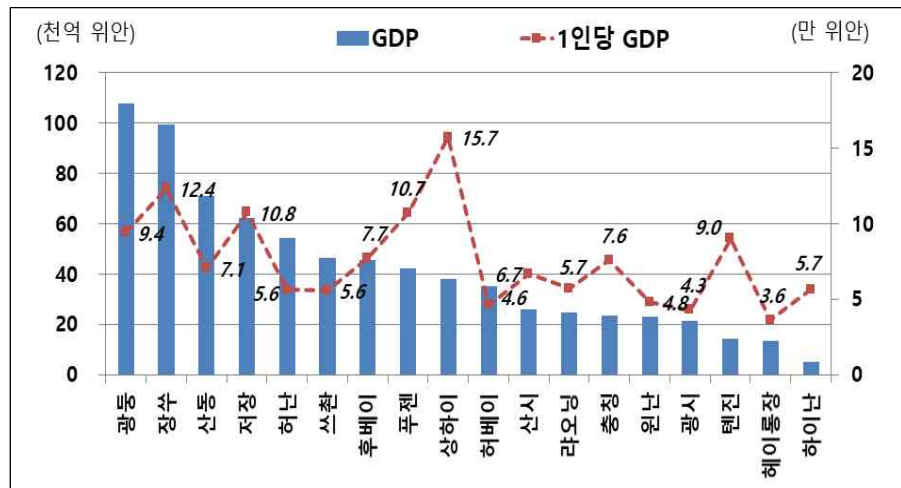
No.	지역	GDP (억 위안)	1인당GDP (위안)
1	광둥	107,671	94,172
2	장쑤	99,632	123,607
3	산둥	71,068	70,653
4	저장	62,352	107,624
5	허난	54,259	56,388
6	쓰촨	46,616	55,774
7	후베이	45,828	77,321
8	푸젠	42,395	107,139
9	상하이	38,155	157,300
10	허베이	35,105	46,348
11	산시	25,793	66,649
12	랴오닝	24,910	57,191
13	충칭	23,606	75,828
14	윈난	23,224	47,944
15	광시	21,237	42,964
16	텐진	14,104	90,306
17	헤이룽장	13,613	36,183
18	하이난	5,309	56,507
자무구 소계		754,875	76,105
중국 전체		990,865	70,892

주: 지역 순서는 GDP 순
 자료: 중국 및 각 지역 「2019년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통계공보」.

중국리포트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인용하실 경우, 자료를 「KMI 중국리포트」로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Copyright © KMI All Rights Reserved.

통계로 보는 중국 : 중국 18개 자무구 지역의 GDP 현황



주: 텐진과 후베이는 지역 GDP와 인구수로 1인당 GDP 계산, 기타 지역은 「통계공보」 발표 수치.
 자료: 각 지역 「2019년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통계공보」, 2020. ; KMI 작성.

2019년 18개 자무구 지역 GDP 합계, 중국 전체 GDP의 76%

2019년 기준, 중국의 18개 자유무역시범구(이하 ‘자무구’, 하이난 자유무역항 포함)가 속한 성·시의 GDP 총합은 75조 4,875억 위안으로 2019년 중국 전체 GDP(99조 865억 위안)의 약 76.2%를 차지했으며, 이 비중은 2018년(78.1%) 대비 약 1.9%p 감소한 수치이다. 또한, 2019년 18개 자무구의 평균 1인당 GDP는 76,106위안으로 2018년(72,106위안) 대비 약 5.5% 증가했으며, 이는 2019년 중국 1인당 GDP 70,892위안보다 5,000위안 높은 수치이다.

지역별로 보면, 광둥성의 GDP가 10조 7,671억 위안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장쑤성, 산둥성, 저장성, 허난성, 쓰촨성 등이었으며, 2018년 기준 8위였던 허베이성이 10위로 하락했다. 1인당 GDP의 경우 상하이시가 15만 7,300위안으로 가장 높았고, 가장 낮은 성은 헤이룽장성(36,183위안)으로 가장 높은 상하이와의 차이는 12만 1,117위안이었다. 2018년 기준 1인당 GDP가 가장 낮았던 윈난성은 전년 대비 29.1% 증가한 47,944위안을 기록했다.

한편, 2020년 ‘양회’에서 발표된 「정부업무보고」에서 올해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을 촉진한다고 언급한 직후인 6월 1일, 국무원 등은 「하이난 자유무역항 총체방안」을 발표하며, 하이난 중국 최초의 자유무역항으로 정식 설립되었다. 또한, 「정부업무보고」에서는 중서부지역에 자무구를 증설하겠다고 언급했는데, 이에 따라 새로운 자무구가 탄생할지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 중국 18개 자무구 지역의 GDP 현황
- ▶ 이슈 포커스 : 하이난 자유무역항과 양산특수종합보세구 설립 현황
- ▶ 동향 & 뉴스

지수 동향

CHINA CONTAINERIZED
FREIGHT INDEX

	01-03	07-10
종합지수	897.53	864.72
일본 항로	731.59	740.47
구주 항로	1,069.06	1,029.15
미서부 항로	681.52	860.41
미동부 항로	884.09	987.62
한국 항로	602.18	577.95

주 : '01-03'은 2020년 1월 3일 지수.
자료 : 상하이항운교역소

CHINA COASTAL BULK
FREIGHT INDEX

	01-03	07-10
종합지수	1,121.76	998.42
석탄	1,038.96	949.61
곡물	933.03	743.71
금속광석	1,069.81	988.53
정유	1,925.55	1,830.88
원유	1,557.48	1,557.48

자료 : 상하이항운교역소

이슈 포커스 : 하이난 자유무역항과 양산특수종합보세구 설립 현황

장기화되는 코로나19로 인해 세계적인 경제 침체가 현실화되고, 여전히 국가간 이동에 많은 제약이 있는 가운데 중국 정부의 개혁개방 심화의 의지는 공고하다. 5월 28일 폐막된 2020년 '양회'의 「정부업무보고」에서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 추진과 무역·외자기반 안정화”가 올해의 주요 임무로 들어가 있다. 또한, 「정부업무보고」에서는 적극적인 외자 활용을 위한 세부 조치로 “기존 현존하는 자유무역시범구(이하 ‘자무구’)의 개혁개방 자주권을 확대하고, 하이난의 자유무역항 건설을 촉진하며, 중서부지역에 새로운 자무구, 종합보세구를 증설하겠다”고 표명했다¹⁾. 이러한 대외개방 확대의 기조 하에서 올해 하이난 자유무역항이 정식 설립되면서 중국은 ‘자유무역항’ 시대를 개막했다. 또한, 지난 5월에는 기존의 상하이 자무구에 속한 양산 보세항구(洋山保税港区)가 중국 최초의 ‘특수종합보세구(特殊综合保税区)’로 개편되었다.

1978년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탄생한 ‘경제특구’ 및 수출가공구, 종합보세구, 보세항구 등 특수경제구역들은 중국의 새로운 대외무역, 투자 정책들을 실험하는 창구였으며, 중국이 신속한 경제발전을 이룩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전에 없었던 자유무역항과 특수종합보세구의 탄생은 중국의 개혁개방과 경제특구의 발전사에 있어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이에 따라, 금번 ‘이슈 포커스’에서는 올해 비슷한 시기에 탄생한 새로운 두 구역의 현황과 주요 정책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1 하이난 자유무역항의 설립 현황 및 주요 정책

1) 설립 배경 및 과정

지난 6월 1일,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중국 국무원은 「하이난 자유무역항 총체방안(海南自由贸易港建设总体方案)」을 발표함으로써, 중국 유일의 자유무역항(Free Trade Port)이 정식 개장되었다. 하이난 자유무역항의 설립은 이미 예견되었던 일이었다. 2018년 4월, 하이난 경제특구 설립 3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시진핑 주석은 하이난을 자유무역시범구로 지정하고, 나아가 중국 최초의 ‘자유무역항’으로 건설하겠다고 언급했다. 그후 국무원은 「하이난 개혁·개방 전면심화 지지에 관한 지도의견(关于支持海南全面深化改革开放的指导意见)」을 발표하여, 하이난의 ‘자유무역항’ 건설 목표를 명문화했고, 나아가 국무원의 「중국(하이난) 자유무역시범구 총체방안(中国(海南)自由贸易试验区总体方案)」에 따라, 2018년 10월 하이난섬 전역(3.54만 km²)이 자유무역시범구로 지정되었다. 하이난 자유무역시범구 총체방안에서는 설립 초기부터 자유무역항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었으며, 총 4단계로 나누어 제2단계 시점(2020년~2025)에는 중국 특색의 자유무역항을 설립하는 것으로 계획했다([표 1] 참조).

1) 국무원, 「2020년 정부 업무보고」, 2020.5.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중국 18개 자무구 지역의 GDP 현황
- ▶ 이슈 포커스: 하이난 자유무역항과 양산특수종합보세구 설립 현황
- ▶ 동향 & 뉴스

[표 1] 하이난 자유무역시범구의 4단계 발전 계획

탐색 단계 (2018~2020)	초기 건립 단계 (2020~2025)	지속 심화 단계 (2025~2035)	완전 성숙 단계 (2035~2050)
하이난 자유 무역 건설 중요한 진전 이룩, 기타 자무구의 성공 사례 참고	→ 중국 특색의 무역항 제도 초기단계 설립, 상업 환경 국내 일류 수준 도달	→ 중국 특색의 자유무역항 제도 체계와 운영 모델 성숙, 세계 수준의 비즈니스환경	→ 특색이 뚜렷한 현대화된 자유무역항 건설, 고도의 자유화·법치화· 국제화·현대화를 위한 제도 체계 형성

자료:新华社, 「中共中央 国务院关于支持海南全面深化改革开放的指导意见」, 2018.4.14.

2) 지역 범위 및 주요 산업 포지셔닝

지리적으로 보았을 때, 하이난은 말라카해협에서 동북아시아로 이어지는 항로상에 위치하고 있어 전략적인 중요성을 지닌다. 또한 하이난은 중국 ‘일대일로’ 전략, 특히 ‘일로’에 해당되는 ‘21세기 해상실크로드’ 전략의 중점 거점으로 역할이 기대되는 지역이다. 이러한 지정학적 위치와 섬이라는 특수성을 바탕으로 하이난은 중국 연해지역의 발달된 도시들보다 빨리 중국 최초의 ‘자유무역항’이라는 타이틀을 획득했다. 하이난 자유무역항은 하이난 내의 특정 지역이 아닌 전체 하이난섬을 그 범위로 한다. 이는 우리나라 제주도의 약 20배에 달하는 면적이다. 그러므로 섬 곳곳에 분포된 11개의 산업단지들이 ‘자유무역항’의 핵심 거점이 된다([표 2] 참조).

[표 2] 하이난 11개 산업단지 분포 및 주요 산업

No.	산업단지	산업 포지셔닝
1	하이커우 푸싱청 인터넷정보산업원(海口复兴城互联网信息产业园)	스마트 IoT, 디지털무역, 금융과학기술 및 국제 역외혁신이 핵심인 디지털경제산업 육성, 국제 디지털경제 본사 및 국제 혁신기지
2	하이커우 장동신구(海口江东新区)	항공허브의 강점을 살려 도시형산업을 중심으로 한 공항경제+서비스경제+생태경제 육성
3	하이커우 국가고신산업개발구(海口国家高新技术产业开发区)	제도혁신 선행구, 첨단하이테크기술 산업발전 인도구, 역외혁신창업 클러스터, 서비스 중점전협력구, 국제문화관광 소비혁신센터
4	하이커우 생태소프트웨어원(海南自贸港生态软件园)	새로운 정보기술산업, 특히 블록체인을 주도로 한 하이난 블록체인실험구, 디지털금융, 건강 등 산업 육성, 고급인재 집결구역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 중국 18개 자무구 지역의 GDP 현황
- ▶ 이슈 포커스 : 하이난 자유무역항과 양산특수종합보세구 설립 현황
- ▶ 동향 & 뉴스

5	원창 국제항톈청 (文昌国际航天城)	항공우주 부대서비스, 첨단제품 R&D 제조 및 빅데이터 개발응용, 국제 교류협력 및 교육, 금융, 전시, 관광 등 육성
6	보아오러청 국제의료관광선행구(博鳌乐城国际医疗旅游先行区)	국제의료관광 목적지, 첨단의료기술개발 및 전환기지, 의료기관 클러스터, 특색과 선진기술을 갖춘 임상의학센터, 중의학 의료재활센터, 국제표준 신체검사센터, 국제유명 의료기관 전시창구 및 후속 의료센터, 국제의료교류센터
7	링쉐이리안 국제교육혁신시험구(陵水黎安国际教育创新试验区)	관광업을 중심으로 한 현대서비스업 및 교육서비스 무역 관련 육성
8	싼야 본사경제 및 중앙상무구 (三亚中央商务区)	각 회사 본사, 지역본부 사무, 대규모 소비지역이 주도하여 본사 서비스 부대시설, 자유무역항 서비스, 문화예술, 설계, 컨설팅 등 육성
9	싼야 야저우완 과학기술성 (三亚崖州湾科技城)	(1) 심해과학기술 : 심해과학기술 R&D 및 응용 중심, 기타 일반 과학기술산업, 해양부대산업, 서비스업을 부대산업으로 하는 산업생태시스템 (2) 난판과학기술 : 종묘과학기술, 열대농업과학, 농림목축산업 및 생물육종기술, 종묘교역무역, 서비스업 등 (3) 과학교육 : 해양, 농업과학연구산업 중심 (4) 세계 동식물 유전자 자원 유치 및 이전기지
10	양푸 경제개발구 (洋浦经济开发区)	(1) 양푸경제개발구 : 서부 육·해신통로의 해운허브, 선진 제조업 기지, 중점물자 교역기지, 국제무역혁신 시범구 (2) 동광 임항산업원 : 천연가스화학공업산업구, 정밀화학공업산업구, 에너지산업구, 남해자원개발장비제조산업구, 석유가스비축구 (3) 린가오진과이항 임항산업원 : 초기구역은 전체산업사를 계획장비건축산업원으로 육성
11	하이커우 종합보세구 (海口综合保税区)	국제 영향력을 지닌 가공제조기지, R&D설계중심, 물류분배중심, 검사수리중심, 판매서비스거점으로 육성

자료 : 하이난 자유무역항 홈페이지(<http://www.hnft.gov.cn>).

3) 전략적 의의 및 주요 정책

「하이난 자유무역항 총체방안」(이하 「총체방안」)이 발표된 후,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는 ‘자유무역항’의 전략적 의의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첫째, 자유무역항은 개방형 경제체계 구축이라는 요구에 부합하는 것이다. 하이난 자유무역항은 중국의 대외개방을 선도하며, 중국의 더 높은 수준을 개혁개방을 위해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고 노하우를 축적하게 된다. 둘째, 시장화·법치화·국제화된 비즈니스환경 조성이다. 하이난 자유무역항은 상품과 시장요소의 유동을 촉진하고, 규범·규칙화된 관리와 표준의 제도형 개방을 추진하게 된다. 셋째,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게 된다. 국제 선진기술, 경영이념과 관리 노하우를 도입하고, 자본, 지식, 기술, 관리, 인재가 포함된 양질의 생산요소 클러스터로 구축한다. 넷째, 인류운명 공동체 구축을 위한 실질적인 행동이다. 하이난 자유무역항 설립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중국의 개혁개방이 지속·심화될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²⁾.

이러한 하이난 자유무역항의 전략적 의의를 실현시키기 위해 「총체방안」에서는 우선적으로 11개 분야에서 39개의 정책 조치 추진을 명시화했으며, 요약하면 아래 [표 3]과 같다.

2) 国务院新闻办公室, “海南自由贸易港的建设 具有现实意义和战略意义”, 2020.6.8.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 중국 18개 자무구 지역의 GDP 현황
- ▶ 이슈 포커스 : 하이난 자유무역항과 양산특수종합보세구 설립 현황
- ▶ 동향 & 뉴스

[표 3] 하이난 자유무역항 주요 정책 조치

No.	구분	주요 내용
1	무역자유 편리화 : 하 이난섬 전 체 보세구 역화, 기본 적으로 제 고관세	(1) 하이난과 국외와의 '1선(一线)'을 구분하여, 진출입 네거티브리스트를 제정하고, 리스트 외 화물은 자유무역항 진입시 수입관세 면제. 복합운송 B/L로 환적하는 화물은 비과세, 비검사. 자유무역항에서 출경하는 화물은 수출로 간주. 국제무역 '싱글윈도우' 구축 (2) 하이난과 중국과의 '2선(二线)'을 설정하여, 하이난에서 중국으로 화물 진입 시 수입으로 규정하고 관세 등을 징수. 단, 하이난에서 가공한 부가가치 30% 이상의 화물이 중국 본토로 진입 시 수입관세 면제(기타 부가가치세, 소비세 징수). 하이난-중국 간의 운송수단에 대해서는 수입절차 간소화. 중국 화물이 하이난에서 환적하여 중국으로 재운송시에는 세관수속 면제 (3) 도내의 자유로운 이동. 하이난을 거쳐 기타 국가로 재운송 시 세관수속 간소화 및 자유무역항 내 적재보관 기한 미설정 (4) 서비스무역 편리화. 국경 간 결제, 해외소비, 인원 이동 등의 장벽 타파
2	투자자유 편리화 : 시장진입 대폭 완화 및 지재권 강화	(5) 시장진입 허가 즉시 진입 제도 실시. '강제 표준'이 있는 영역은 원칙적으로 허가 및 심의를 취소한 신고제 채택. 외국투자에 대한 진입전 내국민 대우 및 네거티브리스트 관리제도 실시 (6) 전자증명서(电子证照)를 중심으로 운영. 청산절차 간소화 (7) 공정경쟁제도 구축. 독점규제 강화 (8) 재산권 보호제도 완비. 중소투자자 보호 및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처벌 강화. 지재권 거래, 증거보존 등에서 블록체인기술 응용 확대
3	국경 간 자금이동 편리화	(9) 다기능의 자유무역계좌시스템 구축. 중국에 있는 현지화외국화계좌와 자유무역계좌를 기반으로 하여 금융대외개방 구축, 하이난과 해외와의 자금 자유편리화 실현 기반 구축 (10) 국경 간 화물서비스무역 편리화를 위해 은행의 진위성 심사를 사전심사에서 사후심화로 전환. 해외 상장, 채권발행 등 우선 지원 (11) 금융권 개방 확대. 국제 에너지, 해운, 재산권, 주식 등 거래소 설립 (12) 금융개혁혁신 가속화. REITs 육성 지원
4	인력 진출입 편리화	(13) 외국인 고급인재 투자창업 및 교류 관련 출입국 편의 제공. 외국인의 하이난 근무 네거티브리스트 관리로 전문기술자 거류정책 확대. 기업인의 임시 입출국 정책 완화 (14) 인재 서비스 관리제도 구축. 인재서비스센터를 구축하여 근무, 교육 생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합법적 권익 보장 (15) 무비자 입국정책 확대, 무비자 체류시간 연장을 점진적으로 추진
5	운송왕래 편리화 : 국제해운 허브와 항공허브 건설 추진	(16) '중국 양푸항(洋浦港) 선적등록항 건설. 자유무역항에 선박 등록을 지원하고, 자유무역항 해운관리체제 및 선원관리 제도 구축. 공역통제 및 항로항해권 제한 완화. 항로 및 항공편 증편 지원 (17) 운송편리화. 선박의 연합 승선검사 추진. 신속한 선박국적 특수관리정책 추진. 선박과 비행기 융자에 대한 효율적인 금융서비스 제공. 선박과 비행기의 국외 용자제한을 취소
6	데이터의 안전한 이동	(18) 통신자원 및 사업 개방 확대. 통신사업의 외자 지분비율 등을 제한을 취소하고 통신사업의 점진적 개방. 하이난 전역 및 국제 온라인데이터 처리와 거래처리(OLTP) 업무 전개, 리스크 통제가 가능한 전체 하에 전국적 업무 단계적 허용
7	현대적인 산업 시스템	(19) 관광업. 국제관광쇼핑센터 건설을 중심으로 관광과 문화체육, 의료, 양로 등의 융합을 추진. 보아러청 국제의료관광시범구 수준 제고. 썬야를 국제크루즈 모항으로 발전시키고, 크루즈관광시범구 건설 지원 (20) 현대서비스업. 항만관리시스템을 혁신하여 항만자원 통합 추진. 보세창고, 국제물류, 중계무역, 벌크무역, 수입상품 전시판매, 유통가공, 컨테이너 LCL업무를 발전시켜 글로벌 SCM 역량 강화. 해양서비스 기초시설 완비, 해양물류, 해양관광, 해양정보서비스, 해양건설링, 해양 관련 금융, 비즈니스 등 적극 발전 (21) 첨단기술 산업, 플랫폼 유치, 산업 업그레이드. 사물인터넷, AI, 디지털무역 등을 중점으로 하는 정보산업 발전. 심해우주항공산업, 바이오의약, 신에너지자동차, 스마트자동차 등 선진 제조업 강화. 세계 동식물 종자자원 기지 건설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 중국 18개 자무구 지역의 GDP 현황
- ▶ 이슈 포커스 : 하이난 자유무역항과 양산특수종합보세구 설립 현황
- ▶ 동향 & 뉴스

8	관세제도	(22) 제로관세. 하이난 전역 보세운용(봉쇄) 전까지 일부 수입상품에 대해서 수입관세와 수입부가가치세, 소비세 면제. 보세운용 후에는 수입과세 상품목록 외 수입 상품에 대해서는 수입관세 면제 (23) 하이난에서 경영하는 기업, 개인에 대해 소득세 우대세를 적용 (24) 관세제도 간략화. 과세종류 개혁, 간접세 비율 축소 및 관세부담 경감 (25) 강한 법치를 통해 ‘조세회피처’로 변질 방지. 국제조세협력에 참여하고 조세정보공유 강화 (26) 최종적으로 국제경쟁력을 갖춘 조세제도 구축
9	사회법치	(28) IT를 최대한 활용한 정부서비스, 플랫폼 구축으로 서비스 표준 정비 (29) 호구(户口) 이동정책을 완화하고 주민신분번호를 통해 하이난 전역에 통일된 거주증제도 실시 (30) 국가생태문명시범구 건설 심화, 천연자원 재산권제도 및 유상사용제도 구축. 자연보호구 내 천연자원 자산특허경영권 등 제도 구축
10	법치제도	(31) 하이난 자유무역항법 제정 및 실시 (32) 자유무역항 건설 현실에 입각한 경제특구 법규 제정 (33) 국제상사 중재, 국제상사 조정 등 다양한 비소송 분쟁해결방식 제공
11	리스크 관리	(34) 하이난 전역에 ‘인력, 화물, 자금 이동’ 정보관리시스템에 의거한 사회 관리감독시스템, 출입국관리시스템 구축. 출입국검사기관 미설립 지역에 종합법률집행점 설립. 광둥, 광시자치구 등과 함께 밀수방지시스템 구축 (35) 투자규칙에 상응하는 과정 검사관리제도 구축. 신기술, 신산업, 신업종, 신모델에 대해 신중하고 포용적인 관리 (36) 금융법치환경 최적화.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자금이동정보 모니터링과 위험방지시스템 구축. 자금세탁, 테러유자, 탈세 방지 강화 (37) 네트워크 안전등급 보호제도 실시 (38) 공공위생방지 강화 및 전염병, 돌발 공공위생사건 대응 체계 구축 (39) 수출입 환경안전 진입관리제도를 엄격히 실행하여 ‘폐기물(쓰레기)’ 수입 방지. 의료폐기물 등 위험물 폐기처리시설 건설 추진

자료 : 「하이난 자유무역항 총체방안」.

2 양산특수종합보세구 설립 현황과 주요 정책

1) 설립 배경 및 과정

중국의 「세관법(海關法)」에 따른 세관감독관리구역(海關監管區)은 다시 세관 특수감독관리구역(海關特殊監管區域)과 보세감독관리장소(保稅監管場所)로 나뉜다. 그중에서 중국 국무원이 인가하는 세관특수감독관리구역에는 보세구와 수출가공원구, 보세물류원구, 보세항구, 과경공업원구, 종합보세구 등이 있다³⁾. 중국 정부는 대외무역 장려와 중계무역 발전을 위해 1990년 상하이 와이까오차오(外高橋) 지역에 최초의 보세구를 설립했다. 그 후에도 여러 지역에 다수의 보세구들이 설립되었는데, 중국이 WTO에 가입함에 따라 관세수준이 하향 평준화됨으로써 보세구가 가지던 강점들이 축소되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산업사슬의 글로벌화가 촉진되면서 세계적으로 보세물류가 중요해지기 시작했다. 중국도 이러한 추세에 따라, 보세구와 항만의 통합·연계를 실행했고, 보세물류원구 등 새로운 형태의 보세구역이 설립되어 보세물류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을 촉진시켰다⁴⁾. 2005년 6월에는 중국 최초의 보세항구인 양산보세항구가 설립되었고, 2006년 12월에는 쑤저우에 최초의 종합보세구

3) 보세감독·관리장소는 세관이 인가하며, 보세창고, 보세물류센터(保稅物流中心) A형, B형, 수출 감독·관리창고 등이 있음, 필자 주.

4) 린귀룽, “중국 세관 감독관리구역 구분 및 주요 특징”, 「KMI 중국물류리포트」 제12-4호, 2012. 4.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 중국 18개 자무구 지역의 GDP 현황
- ▶ 이슈 포커스 : 하이난 자유무역항과 양산특수종합보세구 설립 현황
- ▶ 동향 & 뉴스

가 들어섰다. 즉, 가장 나중에 설립된 보세항구와 종합보세구는 기능이 가장 완비되고 정책혜택이 가장 많은 세관 감독관리구역에 속했다⁵⁾. 이는 양산보세항구가 ‘특수종합보세구’로 개편되기 전까지이다.

양산특수종합보세구의 설립은 상하이 자무구의 변화와 긴밀히 연관된다. 2013년 중국 최초로 설립된 상하이 자무구는 설립 당시 와이까오차오 보세구, 와이까오차오 보세물류원구, 양산 보세항구, 푸둥공항 종합보세구(浦东机场综合保税区) 등 상하이의 4개의 세관특수감독관리구역을 기반으로 했다. 이후 상하이 자무구는 면적과 기능면에서 지속적으로 확장을 거듭해 왔으며, 2019년에는 기존의 양산보세항구가 속한 린강(临港) 지역을 포함하여 푸둥국제공항 남측지역까지 119.5km²의 지역이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 린강신구역(临港新片区)으로 분리 탄생하게 되었다. 2019년 8월 국무원이 발표한 「중국(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 린강신구역 총체방안」에서는 고표준의 무역자유화의 일환으로 “신구역 내에 물리적인 펜스를 친 구역을 설치하고, ‘양산특수종합보세구’를 건설한다”라고 명기했다⁶⁾. 같은 해 12월, 중국 세관총서는 양산특수종합보세구에 대한 관리방침인 「중국 세관의 양산특수종합보세구 감독관리 방법(中华人民共和国海关对洋山特殊综合保税区监管办法)」을 발표했으며, 이듬해인 2020년 1월 17일 중국 국무원은 양산특수종합보세구 설립을 승인했다. 이후 세관총서,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관련 부처들의 검수를 마치고 2020년 5월 16일, 양산특수종합보세구가 중국 유일의 특수종합보세구로서 정식 설립되었다.

2) 지역 범위 및 주요 산업 포지셔닝

상술한 바와 같이 양산특수종합보세구는 상하이 자무구의 린강신구역에 속한다⁷⁾. 양산특수종합보세구의 계획 면적은 총 25.31km²이며, 크게 루차오항(芦潮港) 구역 7.99km², 소양산도(小洋山岛) 구역(현재 양산항 소재 지역), 9.46km², 푸둥공항 남부구역 7.86km²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중에서 지난 5월 12일, 검수에 통과한 1단계 펜스 구역은 14.27km²(기존 양산보세항구 육측구역과 양산항 1~4단계)이다. 양산특수종합보세구의 기능 포지셔닝은 10개로 설정되었다. 먼저 ① 해운서비스 및 항만부가가치서비스, ② 국제환적 컨테이너 LCL 및 선적항 수출환급, ③ 국제구매배송 및 분배중심, ④ 대중상품(중점 벌크물자) 교역 및 선물보세인도, ⑤ 해운금융 및 융자리스의 현재 비교적 성숙되어 있는 5개 기능을 바탕으로 하여, ⑥ 국제무역 및 신행업체, ⑦ 보세전시 및 전문화된 시장 기능, ⑧ 국제 투·융자 및 금융혁신, ⑨ 국제선박 등록 및 선박 관리, ⑩ 서비스무역 및 서비스업 개방 등 5개 기능을 더욱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표 4] 참조).

5) 2020년 6월 기준, 중국에는 총 155개의 세관특수감독관리구역이 존재하며, 보세항구 8개, 종합보세구 134개, 보세물류원구 1개, 보세구 9개, 수출공공구 1개, 과징공공구 1개, 국제변경협력센터(중·카자흐 호스탄) 1개임, 세관총서, <http://zms.customs.gov.cn/zms/hgtsjgqy0/hgtsjgqyndqk/3189456/index.html>

6) 국무원, 「중국(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 린강신구역 총체방안」, 2019.8.

7) 현재 상하이 자무구는 기존의 상하이 자무구 관리위원회와 상하이 자무구 린강신구역 관리위원회(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临港新片区管理委员会)로 이원화된 상태이며, 양산특수종합보세구는 상하이 자무구 관리위원회에서 분리되어 린강신구역 관리위원회에 속함, 중국(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 린강신구역 관리위원회 홈페이지, <https://www.lgxc.gov.cn>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 중국 18개 자무구 지역의 GDP 현황
- ▶ 이슈 포커스 : 하이난 자유무역항과 양산특수종합보세구 설립 현황
- ▶ 동향 & 뉴스

[표 4] 양산특수종합보세구 구역 분포 및 주요 기능 포지셔닝



No.	육성 기능	주요 내용
1	해운서비스 및 항만부가가치서비스	선용 보세유, 선용품 공급, 선박 유지보수, 마리나(요트 등정박 시설) 시설, 콜드체인물류, 선박대리, 선박용자리스, 항만 정보화 등 주력 발전
2	국제환적 컨테이너 LCL 및 선적항 수출환급	국의 화물이 양산항에 도착 후, 국내 화물과 함께 분류, 재포장을 거쳐 각기 다른 목적항(혹은 고객)에 따라, 재수출되는 일종의 부가가치물류서비스가 중점. 양산항에서 수출되는 화물은 '선적항 수출세환급(启运港退税)*' 등 지원정책 실시
3	국제구매배송 및 분배중심	양산보세구는 이미 지역성 다수의 세계 500대 기업들이 본매센터를 두고 있으며, 통신전자제품, 자동차부품, 기계, 가구, 식품 등의 상품들을 주로 취급. 또한, 구역 내 시범기설시 기업들에게는 국내화물 운송서비스, 창고서비스, 하역서비스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 환급 등 혜택을 부여
4	대중상품 교역 및 선물보세인도	보세창고증권 담보기능이 실시된 후, 입주기업의 규모화 운영 실현. 국제 대중상품 교역과 자원배치 플랫폼, 에너지상품, 기초공업원재료, 농산품의 국제무역 등 발전
5	해운금융 및 용자리스	선박, 대형공정설비 등 용자리스업무를 중점적으로 발전해 음. 해운금융, 해운보험, 가격지수 등 기타 서비스업 포함
6	국제무역 및 신행업체	수출입과 내수화물, 수입과 수출화물, 현지화와 외화, 보세와 비보세, 면세와 환급, 무역과 전시, 해운과 항공이 결합된 국제무역 비즈니스 모델 육성
7	보세전시 및 전문화된 시장 기능	무역주체들을 결집하여, 보세전시와 교역 모델을 통해 각종 전문화된 국제상품 전시시장으로 구축
8	국제 투·융자 및 금융혁신	국의 투자신청 간소화, 국외투자기업의 등록제 중심의 관리방식 실시(자무구 관리위원회 담당), 구역 내 국제경영기업의 외화자금풀 확대, 국내 모기업과 국내의 관계기업 간의 자금분배자주권 실현, 인민폐 자본항목의 태환과 이율의 시장화
9	국제선박 등록 및 선박 관리	국제선박의 등록업무 전개, 국제선박관리업 중점 발전
10	서비스무역 및 서비스업 개방	금융서비스, 해운서비스, 상무무역서비스, 문화서비스 부분 개방 확대. 투자자 자격요건, 지분비율, 경영범위 등 완화

주 : *선적항 수출세환급이란 조건에 부합하는 수출기업이 화물의 실제 선적항에서 수출통관 후, 경유항 등 다른 항만에서 출경(离境) 할 시, 선적항에서 수출세를 환급하는 정책으로 수출기업은 선적항 선적 후 수출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화물이 실제 국경을 벗어난 후, 세관 관련 데이터를 세무부문에 전달하고 세무부문은 다시 환급데이터를 세관에 전달하게 됨.

자료 : 중국(상하이) 자유무역구 런강신구역 관리위원회 홈페이지, <https://www.lgxc.gov.cn>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 중국 18개 자무구 지역의 GDP 현황
- ▶ 이슈 포커스 : 하이난 자유무역항과 양산특수종합보세구 설립 현황
- ▶ 동향 & 뉴스

3) 전략적 의의 및 주요 정책

종합보세구는 중국의 세관특수감독관리구역으로 세관은 보세구를 봉쇄관리(封鎖)하고 국외화물의 보세상태로 반입, 국내화물의 반입시는 수출로 간주하여 수출세 환급 등을 실시하는 구역이다. 중국 유일의 양산특수종합보세구는 기존의 종합보세구와 비교하여 더욱 개방정책이 실시되는 지역이다. 세관 총서의 관계자는 양산특수종합보세구의 ‘특수성’을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

첫째, 신고모델 측면이다. 법률·법규가 요구하는 반드시 신고가 필요한 화물 외에 ‘1선(一线, 국경내외 경계선)’에서 증명이나 검역이 필요 없는 화물에 대해서는 그대로 반입하고 기업은 바로 화물인도 및 발송할 수 있으며, ‘2선(二线, 구역내외 경계선)’에서 구역 내외 기업이 양측 모두 신고해야 하는 제도를 구역 외 기업의 단일 신고제도로 전환한다. 둘째, 무역관리제도 측면이다. 국제공약, 조약, 협정과 관련되거나 안전진입관리가 필요한 화물을 제외하고, ‘1선’에서는 검사관리증명서 확인이 필요한 화물 외에 나머지는 ‘2선’에서 검사한다. 법에 의거하여 검역을 실시하는 화물에 대해 원칙상 출입국관리소에서 실행하고, 세관비준을 거쳐 구역내 검역을 할 수 있다.

셋째, 구역 내 관리 측면이다. 중국의 기타 종합보세구는 수출입 화물에 대해 장부관리(账册)를 실시하고 있으며, 각 장부들의 기능은 다른 관계로, 업무가 다원화된 기업은 다른 세관장부로 수출입 화물을 관리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특수종합보세구에서는 세관의 장부관리(账册)를 취소하고 구역내 기업의 세관장부 단독설립을 요구하지 않는다. 장부상세심사와 가공무역 단위소모관리 등 세관이 일반적으로 실행하는 검사관리를 면제하고, 구역내 자율관리를 하는 기업에 대해 세관은 정상경영활동에 관여하지 않는다. 기업은 법에 의거해, 환적, 화물혼재, 보관, 가공, 제조, 교역, 전시, R&D, 재생산, 검사수리, 소매, 배송 등 업무를 전개할 수 있으며, 화물보관에 있어 기한을 설정하지 않는다. 넷째, 통계제도 측면이다. 기존에는 실시간으로 한건 한건마다 통계하는 방식을 개선하여, 통계데이터가 양산특수종합보세구 관리기구가 개설한 공공정보서비스 플랫폼에 자동으로 취합하게 한다.

다섯째, 정보화 관리 측면이다. 자무구 린강신구역 관리위원회는 일체화된 정보관리서비스 플랫폼을 개설하여 통일화·규범화된 신뢰할 수 있는 정보 DB를 구축하며 정보의 상호연계, 데이터 추적을 실현한다. 여섯째, 협동관리 측면이다. 특수종합보세구 관리기구로서 린강신구역 관리위원회는 기업 신용, 중요 사건, 연차 보고서 등 정보를 주동적으로 공시하는 제도를 구축하고, 공동 관리 한다⁸⁾.

이러한 양산특수종합보세구의 혁신 정책들은 린강신구역 관리위원회, 인민은행 상하이점, 상하이해사국, 상하이출입국관리국 등이 공동 발표한 「양산특수종합보세구 대외개방과 혁신 발전을 위한 의견(关于促进洋山特殊综合保税区对外开放与创新发展的若干意见)」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표 5] 참조).

8) 东方财富网, “洋山特殊综合保税区“特”在何处”, 2020.5.24.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 중국 18개 자무구 지역의 GDP 현황
- ▶ 이슈 포커스 : 하이난 자유무역항과 양산특수종합보세구 설립 현황
- ▶ 동향 & 뉴스

[표 5] 양산특수종합보세구의 주요 혁신조치

No.	구분	주요 내용
1	수준 높은 무역자유화, 편리화 실시	<p>(1) 규정 상 반드시 신고해야 하 화물을 제외하고 '1선'에서 증명이나 검사 없이 화물 즉시 반출 가능(즉시 출고 및 발송). '2선(二线)' 반출은 기존 구역 내외 기업 양측신고제도에서 구역 외 기업 단일신고제로 변경</p> <p>(2) '1선'에서 검사관리증명서 확인이 필요한 화물 외에는 '2선'에서 검사</p> <p>(3) 세관의 장부관리(账册) 취소. 장부심사(核销)와 가공무역 단위관리 등 세관이 일반적으로 실시하는 검사관리 면제, 자율관리.</p> <p>(4) 기업은 환적, 화물혼재, 보관, 가공, 제조, 교역, 전시, R&D, 재생산, 검사수리, 소매, 배송 등 업무 가능</p> <p>(5) 보관화물에 대해 보관기간 미설정</p> <p>(6) 기업의 자체등록확인제 실시. 등록기관은 신청인이 제출한 등록자료에 대해 심사하고, 심사 통과 후 즉시 영업집조(사업자등록증) 발행</p> <p>(7) 해외 유명중재기관, 분쟁해결기관은 관할 부문 등록 후 설립 가능</p> <p>(8) '협동관리+위험예방+정무서비스+부가서비스' 기능을 갖춘 관리부문, 구역 기업과 관련 운영 주체가 일체화된 정보관리 서비스플랫폼 구축</p> <p>(9) 금융기구가 신용관리서비스 플랫폼에 신용기능 추가 지원, 벌크화물 창고증권담보대출, 공급체인 금융 등 금융업무 혁신 모색</p>
2	국경 간 금융혁신	<p>(10) 구역 우수기업의 주요 분야 국제 경제활동에 대해 은행은 자율적인 업무심사 방식 결정. 무역 인민폐 결산 및 외국 직접투자, 국제금융자와 해외 상장 등을 통한 인민폐 수입에 대해 구역내 지불사용을 직접 처리 가능</p> <p>(11) 구역 해외직접투자기업 자본금 등 직접투자활동 관련 자금을 자유무역계좌 내 전문용도 계좌로 설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태환 가능</p> <p>(12) 은행은 글로벌기업에게 자유무역계좌에 기초한 캐시폴딩, 구역 내외 구역 외(국내)간의 인민폐 자금 전환을 실제 수요에 따라 조정 가능</p> <p>(13) 조건에 부합하는 금융기관이 해외에서 조달한 자금 및 국제 서비스를 통해 취득한 수입은 구역 내 및 해외 경영투자활동에 자율사용 가능</p> <p>(14) 기업이 구역 내외(국내) 여러 업종의 무역에서 인민폐 결제 지원</p> <p>(15) 은행은 자유무역계좌를 통해 리스크 통제가능 원칙에 근거해 구역 기업에게 SCM, 글로벌 첨단제조 및 관련서비스업, 국경간 종합서비스업 등 관련 업무수행과 전 과정 글로벌 금융서비스의 제공 지원</p> <p>(16) 구역 내 해외인력에게 자유무역계좌로 태환가능한 국제 금융서비스 지원</p> <p>(17) 리스크 관리 하에, 구역내 기업과 비거주민에게 국경 간 채권발행, 투자 인수와 자금집중 운영 등 글로벌 금융서비스 제공 지원</p>
3	글로벌 공급체인 관리서비스 확대	<p>(18) 국제 해운, 창고, 물류, 운송업무 종사기업과 국내 화물운송, 창고, 하역업무 종사기업에 대해 매년 종합공헌도에 근거하여 일정 장려금을 지급</p> <p>(19) 첨단보관물류업무를 새로 시작하는 기업에 대해 실제 리스 혹은 자체 보유 창고면적에 근거하여 매년 1개월 리스 및 보수비용을 총 3년까지 지원(두 항목의 총 액수는 최고 100만 위안 이하)</p> <p>(20) 선적항 환급정책을 더욱 개선하고 수출기업의 양산항을 거쳐 출항하는 컨테이너 화물에 대해 더욱 효과적인 검사관리와 서비스를 실행</p> <p>(21) 중국 자본 편의지적선의 연해 샤오파이(捎帶 : 연안운송의 한 형태) 실시 효과를 확대. 외국 선박의 양산항을 국제환적항으로 하는 수출입컨테이너에 대한 연해 샤오파이 업무 허가방안을 모색</p> <p>(22) 푸둥국제공항 환적화물 혼재서비스의 제공을 지원하며 더욱 편리한 세관감독관리제도 시행. 푸둥국제공항에 화물분류운송과 검사관리의 기능이 집약된 항공화물 스테이션의 건설</p> <p>(23) 국제 LCL서비스 종사기업에 대해 구역 내 업무 컨테이너 수량에 따라 매년 최고 200만 위안의 보조금 지급. 국제 컨테이너 리스 등 업무를 진행하는 기업에 대해 인증을 거쳐 종합공헌도를 기준으로 최대 80% 지원</p> <p>(24) 컨테이너, 항공화물 등 국제환적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에 대해 그 규모와 공헌도에 따라 매년 최고 1,000만 위안의 지원. 양산항, 상하이 남항(南港)에 예측된 선사(등록 불필요)에 대해 대외무역 항로 1개가 증가 시 컨테이너 물동량 신규증가분에 따라 최고 500만 위안의 보조금을 지급</p> <p>(25) 국제LCL서비스센터, 보세선박 물자공급 및 보세유공급서비스 플랫폼 등 플랫폼에 대해 운영 실적평가에 근거하여 최고 200만 위안 일회성 지원</p>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중국 18개 자무구 지역의 GDP 현황
- ▶ 이슈 포커스: 하이난 자유무역항과 양산특수종합보세구 설립 현황
- ▶ 동향 & 뉴스

		<p>(26) 더욱 편리한 ‘중국 양산항’ 국제선박 등록관리제도 시행</p> <p>(27) 중국 내 제조된 선박이 양산항에 등록하고 국제운송에 종사할 시에는 수출로 간주하여 수출세 환급</p> <p>(28) 구역 내 등록기업이 글로벌 운행 혹은 홍콩, 마카오, 대만 항로에 종사하는 경우, 선박의 법정검사관리 완화 모색</p> <p>(29) 조건에 부합하고 양산항에 등록한 국제운항선사에게 등록 선박 1척당 (중복등록 외) 총톤수에 근거해 매년 300만 위안 이하의 일회성 장려금 지급</p> <p>(30) 글로벌 관리수준을 갖춘 선원과견기관 설립을 장려</p> <p>(31) 고급선원, 도선사 육성을 지원하고 선장, 기관장 및 선박위치제어시스템 엔지니어 등 고급인력 육성 프로그램 운영기업에 대해 일정한 지원</p> <p>(32) 복합운송정보 공유플랫폼 구축 지원. 운영실적평가에 근거하여 최고 100만 위안의 일회성 보조금 지급</p> <p>(33) 양산항, 상하이 남항, 푸둥국제공항과 루차오(芦潮)항 철도 ICD에서 다양한 복합운송을 통해 발생한 물동량 증가부분에 대해 다른 복합운송 방식 등에 근거하여 컨테이너 당 20-30위안, 매년 600만 위안 이하의 장려금 지급</p>
4	글로벌 첨단제조 및 관련서비스업 육성	<p>(34) 혁신센터, 공정기술센터, R&D센터, 실험실, 기업기술연구원 등 연구개발기구 설립에 대해, 평가를 거쳐 총 투자의 50%를 지원(최고 1,000만 위안)</p> <p>(35) 중점산업 방향에 부합하는 시급(市级) 및 그 이상의 창업공간, 창업인큐베이터에 대해 실제 투자의 50% 지원(연간 500만 위안, 총액 2,000만 위안 이하). 지원금은 사업건설, 부동산임대 등에 사용</p> <p>(36) 제조가공기업의 기술혁신 지원. 기술혁신 지원금은 사업 총 투자액의 10%를 넘지 않아야 하고 최고 1,000만 위안. 총 투입된 금액이 1억 위안에 달하고, 중점 기술혁신 지원목록의 중점사업에 부합한 경우, 지원금은 총 투자의 20%로 최고 5,000만 위안. 사업 총 투자는 2,000만 위안 이상이어야 하며, 그중 고정자산투자는 총 투입 중 60% 이상이어야 함</p> <p>(37) 관리위원회, 세관 등 부문의 스마트화, 디지털화 개조 등의 시행에 참여하는 기업의 투입 하드웨어 및 시스템개발에 대해 일정한 지원</p> <p>(38) 검사수리와 친환경 재생산센터 건설 장려. 항공우주, 선박, 철도, 엔지니어링기계, NC 공작기계, 통신설비, 정밀전자 등 제품 수입 수리와 재생산, 첨단 스마트제조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p> <p>(39) 자동차 PDI센터 설립 장려</p> <p>(40) 선박에너지 소모데이터센터(船舶能耗数据中心) 설립 장려</p> <p>(41) 보세 R&D, 보세유지검사, 선박에너지 소모데이터센터 등 플랫폼 구축 기업에 대해 최고 200만 위안의 일회성 지원금을 지급</p> <p>(42) 전자감독관리를 모색하여 무역 자유화·편리화 수준 제고. 조건 부합의 중점기업에게 담보 면제</p> <p>(43) 중점기업 수입화물의 위험 통제가 가능한 검역 등의 업무에 대해, 세관의 기준을 거쳐 공장 내 지정장소에서 검사 실시</p> <p>(44) 중점기업 수입화물 중 법정검사가 필요한 일반상품에 대해 ‘합격보증+적합성검증’의 검사모델 채용. 위험평가를 위해 샘플검사를 거쳐야하는 상품에 대해 세관은 적합성검증 실시</p> <p>(45) 수요에 따라 세관은 중점기업의 가공무역업무 수기장부관리에 대해 기업의 자율신고, 자율기업, 자율보고, 자율세금납부를 허가</p> <p>(46) 중점 기업그룹 내 기업들의 그룹 보세감독관리의 실시를 모색하고 통일된 가공무역 장부 구축</p> <p>(47) 바이오의약 중점기업이 수입하는 특수물품에 대해 위험평가와 심사와정을 최적화하고 동일 샘플에 대해 ‘1회평가, 분산 입경’ 관리 모색</p> <p>(48) 바이오의약기업의 수입 연구개발용 원부재료에 대해 합성 전 인증을 하고 「수입약품통관신고서」 작성 면제</p> <p>(49) 국산 대형 비행기사업의 시범비행 기간 부품 및 설비의 추가, 해체 등에 대해 기업이 자체 관리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사후 세관에 관리모델을 신고, 시범비행기간 부품, 설비수입, 수리, 업그레이드, 재수입 과정 간략화</p>
5	국경 간 종합서비스업 발전 촉진	<p>(50) 중계무역기업의 기술선진형 서비스업체 인증신청 지원, 세금혜택 부여</p> <p>(51) 중계무역기업에게 합법적인 입출금과 환전서비스 제공 지원</p> <p>(52) 중계무역 해외투자무역기업의 기업 지역본부 인증신청을 지원</p> <p>(53) 관리위원회의 인증을 거친 물류, 해운, 무역, 금융 등 본사집중형 기업에 대해, 사업 규모, 공헌도에 근거하여 일정한 종합 공헌장려금 지급</p>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 중국 18개 자무구 지역의 GDP 현황
- ▶ 이슈 포커스 : 하이난 자유무역항과 양산특수종합보세구 설립 현황
- ▶ 동향 & 뉴스

		<p>(54) 구역내 기업의 합법적인 벌크상품 보세, 비보세, 수출거래업무 수행을 지원하고 수입수출, 선물과 현물의 연동발전 추진</p> <p>(55) 선물보세거래, 벌크상품거래 등을 통한 무역액이 10억 위안 이상의 기업에 대해 실제 공헌에 따라 매년 최고 6,000만 위안의 장려금 지급</p> <p>(56) 벌크상품 가격, 지수 개발 지원. 국제 가격, 지수 개발·발표 주도에 대해서 100만 위안 장려금 지급. 개발·발표 참여에 대해 30만 위안 장려금 지급</p> <p>(57) 용자리스방식으로 비행기, 선박, 대형해상공업장비 및 생산설비를 수입할 때 실제 수출입지역이 아니나 세관이 보세검사관리하고 물류 실체수요에 따라 소속 세관지역에서 검사관리를 실시</p> <p>(58) 구역내 SPV사업 자회사에 대해 외환 캐시폴링 관리 지원. 용자리스 회계제도 혁신을 가속화하여 SPV사업 자회사 소유의 비행기, 선박 등 고정자산의 가속상각 모색</p> <p>(59) 구역 내 용자리스회사에 대해 그 임차인이 관련 의료기기 경영자격을 갖춘 경우, 관련 허가수속 면제 모색</p> <p>(60) 비행기, 선박, 집적회로, 지식재산권 등의 보세리스자산거래 플랫폼 구축 장려. 인증 및 평가에 근거해 최고 200만 위안의 일회성 지원금 지급</p> <p>(61) 신규 설립 비행기, 선박, 대형설비 용자리스(특수사업자회사 포함) 기업에 대해 실제납부 등록자본금과 종합공헌도 근거하여 리스상품 전기간 지원</p> <p>(62) 상하이시 지방금융감독관리국, 시장감독관리국, 세관, 외환국 지부, 市 상무위원회 등과 함께 윈스톱 서비스 시스템과 업무소통시스템을 구축</p> <p>(63) 국제 전자상거래 소매수출에 대해 규정에 의거해 부가가치세와 소비세, 기업소득세 추계과세 등을 면제. 중점국가 시장을 포괄하는 글로벌 배송플랫폼, 해외창고의 구축을 지원하고, 해외창고 공동건설 공동사용 지원</p> <p>(64) 관련 검역과 위험 방지요구에 부합하는 조건 하에 화장품, 의약품, 일용품 등을 국제 전자상거래 물품 ‘포지티브리스트’ 확대와 반려동물식품 수입을 모색. 위험통제가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인터넷쇼핑 보세수입상품 오프라인 셀프수령’ 모델 모색</p> <p>(65) 국제 디지털무역 플랫폼 구축을 지원하고 제조업, 금융, 문화 등 중점영역을 집중시키며 디지털 글로벌기업의 본사 유치</p> <p>(66) 국제 전자상거래 해외창고, 배송플랫폼, 디지털무역 플랫폼 등에 대해 인증을 거쳐 실적평가에 근거하여 최고 200만 위안의 일회성 지원금 지급</p> <p>(67) 신규 설립 해운보험, 해운결산, 연료공급, 해운대리, 비행기선박거래, 항공기재리스, 선원 육성 등 첨단항공해운서비스에 종사하는 기업에 대해 실제 납부 등록자본금에 근거하여 최고 1,500만 위안의 장려금 지급</p> <p>(68) 기업의 해운 금융과생상품업무 실행을 지원하고, 관련 전문기관의 국가유관규정에 의거한 해운지수 파생상품 개발 지지. 관련 거래주체에 대해 등급 규모에 따라 일정 장려금 지급</p> <p>(69) 해운중재, 법률, 싱크탱크 등 해운 기능성기관 설립 지원. 업계 영향력을 지닌 국제·국가급 기관에 대해 등급별 최고 500만 위안 일회성 장려금 지급</p> <p>(70) 글로벌 예술품, 고급자동차, 시계 및 주얼리, 의료기기 등 고급용품의 보세전시거래업무 지원. 보세전시거래 플랫폼 구축기업에 대해 인증을 거쳐 운영실적평가에 근거하여 최고 200만 위안의 일회성 지원금 지급</p>
6	종합서비스 수준 향상	<p>(71) 금융, 건축, 설계 등 영역에서 해외 자격증을 지닌 조건 부합 전문인재의 신고를 거친 구역 내 업무수행을 허가</p> <p>(72) 국가주권 및 안전에 관련되는 사항을 제외한 해외인재의 구역내 관련직업 국가 자격시험 응시를 허가</p> <p>(73) 장기근무의 첨단과학기술영역의 해외인재, 해외기술인재 및 지역산업방향에 부합하는 기관 초빙의 해외인재에 대해 연령, 학력, 업무 경력의 제한을 두지 않고, 규정에 따라 일회성 2년 이상의 재중 근무허가 발급</p> <p>(74) 해외 고급인재와 부족분야 인재에 대해 개인소득세 조세부담 차액 보조</p> <p>(75) 구역내 실제 경영기업의 임원, 특수고급인재에 대해 지원. 정착을 지지하고, 거주지, 부동산, 자녀교육, 의료보험 등 방면에서 우대정책 적용</p> <p>(76) 정부가 서비스를 구입하는 방식으로 구역 내 플랫폼, 공공실험실, 통관서비스센터 등 공공서비스시설 및 온라인 네트워크, 영상단속시스템 등 기초 및 검사관리시설에 대한 운영유지보수 강화</p> <p>(77) 구역 내 관련 시설에 대해 사업규모에 근거하여 임대료, 개설투자, 운영비 등을 지원</p>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 중국 18개 자무구 지역의 GDP 현황
- ▶ 이슈 포커스 : 하이난 자유무역항과 양산특수종합보세구 설립 현황
- ▶ 동향 & 뉴스

		<p>(78) 관리위원회, 상주기능부문, 구역개발주체와 구역내 중점기업의 ‘4위 1체’ 연동 혁신플랫폼 구축</p> <p>(79) 기업소통서비스플랫폼을 구축. 기업서비스 전문인원 배치</p> <p>(80) 기업에 대해 산업별 등급별 서비스 시스템 구축</p> <p>(81) 2020년 1월 1일 이후 특수종합구역내에 등록된 기업에 대해 경제공헌의 최고 80% 지원. 2019년을 기준으로 구역내 기업이 경영 규모와 실제 납부 등록자본금을 1,000만 위안 이상으로 확대하는 경우, 당해 실제 납부 등록자본금의 2% 비율의 장려금(익년 적용) 지급</p> <p>(82) 투자유치와 육성작업 중 뚜렷한 역할을 한 투자유치서비스기관, 개발주체에 대해 일정한 장려금 지급</p>
7	부칙	<p>(83) 지원대상은 등록신고, 세무관계가 모두 양산특수종합보세구역 내에서 이뤄지고, 관련 부문의 ‘신용불량명단(失信名单)’에 오르지 않아야 함</p> <p>(84) 자유무역시범구, 종합보세구와 린강신구의 모든 정책은 양산특수종합보세구에 적용</p> <p>(85) 지원대상이 혜택을 받을 때 관련 규정에 명시된 관리위원회 자금을 추산근거로 함. 기업이 받은 당해 각항 지원정책의 최고 금액은 당해 관리위원회 경제공헌의 상응비율을 넘지 않아야 함</p> <p>(86) 지원을 받은 기업은 당해부터 양산특수종합구에서 경영을 10년 이상 지속할 것을 서면으로 명시. 이전 시 이미 수령한 장려금 회수</p> <p>(87) 구역내 기타 특수 혹은 혁신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에 대해 “1사1의(一事一议)”의 방식을 적용하여 지원</p> <p>(88) 본 의견은 발표일부터 실시되며 2023년 12월 31일까지 유효</p>

자료 : 린강신구역 관리위원회 등, 「양산특수종합보세구 대외개방과 혁신 발전을 위한 의견」, 2020.6.

3 시사점 및 활용 방안

이번 하이난 자유무역항 및 양산특수종합보세구의 설립은 중국 경제특구가 또 다른 발전 단계로 접어들었음을 시사한다. 하이난 자유무역항의 경우, 중국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최초의 자유무역항으로서 세간의 이목을 모으고 있으며, 홍콩, 싱가포르 등 기존의 세계 자유항들과의 비교도 진행되고 있다. 물론 현재 단계는 설립 초기 단계로서 기존의 자유무역시범구의 틀을 크게 못 벗어나고 있으며, 경제산업기반도 중국 연해주요 대도시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또한, 산업구조도 중계무역, 물류가 핵심산업으로 정착된 홍콩, 싱가포르 등 통상적인 자유항과는 차이가 크다. 하지만, 하이난 자유무역항은 중국 정부가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는 전략이며, 후발 주자인 만큼 기타 세계의 자유항 혹은 중국 내 자무구들의 성공 사례들을 벤치마킹할 수 있으며, 섬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중국 본토와 독립적으로 보다 혁신적인 개방정책들을 자유롭게 실험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하이난섬 전역이 자유무역항 지역으로 지정됨으로써 다양한 산업들을 동시다발적으로 개발시킬 가능성이 크며, 동남아시아 등 타국 시장과의 접근성도 높으며, ‘해상 실크로드’의 길목에 위치한 바, 향후 중계무역·물류 거점으로도 발전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하이난성의 주력 산업인 관광업, 농수산업, 서비스업 등 기반은 하이난 자유무역항이 세계의 다른 자유항과는 차별성을 보이며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고, 관광산업을 국제화하고 의료, 생태·친환경 발전과 같은 서비스와 하이테크산업은 정책 추진과 자금지원을 통해 빠른 발전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 중국 18개 자무구 지역의 GDP 현황
- ▶ 이슈 포커스 : 하이난 자유무역항과 양산특수종합보세구 설립 현황
- ▶ 동향 & 뉴스

상하이 양산특수종합보세구의 경우, 중국 각 종류 보세구 유형에 있어서 가장 높은 개방 수준을 자랑한다. 2019년 기준 4,300만 TEU가 넘는 컨테이너물동량을 보유하고 있는 상하이항을 기반으로 하여, 푸둥공항까지 연계하는 이미 성숙된 물류환경을 보유하고 있는 곳으로 양산특수종합보세구의 포지셔닝 역시 중계무역, 해운물류 및 관련 부대 서비스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어떻게 보면, 비슷한 시기에 설립된 하이난 자유무역항보다 훨씬 전통적인 자유무역항에 부합하는 곳이며, 상하이의 ‘자유무역항’ 설립의 포석이라고 해석된다. 이미 양산특수종합보세구가 현판식이 거행되는 날 머스크 아시아분배센터, 시노트란스 국제환적 LCL센터, 카길(Cargill) 무역센터 등 중국 내외 유수의 글로벌 해운물류, 제조기업들의 대형 신규 프로젝트들이 체결도 같이 이루어져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⁹⁾. 이번에 발표된 양산특수종합보세구의 정책들에는 다양한 분야의 인센티브 조치들도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 중국에서 기 진출한, 혹은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우리나라 해운·물류기업 및 인증검사, 금융, 무역 등 관련 기업기관들도 이를 유심히 살펴보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볼만 하다. 하지만, 양산특수종합보세구가 주창하는 환적물량 유치 등은 인근한 우리나라 항만들에게 위협 요인으로 작용하는 바, 관련 정부기관들의 대응책 모색도 요구된다.

과거 중국의 경제발전 과정을 회상해 볼 때 자유무역항이든 특수종합보세구이든 이러한 새로운 구역들은 향후 ‘새로운 시대’의 중국 경제발전의 동력이 될 것이다. 상술한 바와 같이 이러한 새로운 ‘자유구역’은 중국 진출을 노리는 기업들에게는 기회로도 작용할 수 있지만, 동북아지역 국가 간 해운·항만·물류산업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역시 관련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개발, 자유무역지역의 혁신 등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며, 중장기적인 국가전략 수립도 요구된다. 또한, 아직은 설립 초기 단계인바, 향후 중국의 새로운 ‘자유구역’들의 발전 과정에 대해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김세원 전문연구원·한광석 센터장
kmishanghai@naver.com

9) 临港集团, “洋山特殊综合保税区今天正式揭牌! 首批18个新入驻项目集体签约”, 2020.5.16.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 중국 18개 자무구 지역의 GDP 현황
- ▶ 이슈 포커스 : 하이난 자유무역항과 양산특수종합보세구 설립 현황
- ▶ 동향 & 뉴스

동향 & 뉴스

해운 · 항만 · 물류

- [하이난 양포\(洋浦\), COSCO SHIPPING Energy 및 중국은행과 전력적인 협력 협의 체결을 통해 국제해운허브 건설 추진](#)
- [COSCO SHIPPING, 알리바바와 마이그룹\(蚂蚁集团 엔트파이낸셜\), 전략적인 협력 협의 체결](#)
- [교통운수부, 후베이성 교통강국 시범사업 승인](#)
- [초상륜선\(招商轮船\), 2020년 상반기 동기 대비 약 500% 대폭 성장](#)
- [중국 항만 물동량 회복세\(7월 1일~7월 10일 항만생산 모니터링 및 분석\)](#)
- [2020년 상반기 중국 세관총서 주요 정책 정리](#)
- [2020년 상반기 중국 수출입 현황](#)
- [중·유럽 정기화물열차 올해 상반기 5,122회 운행](#)
- [후둥중화\(沪东中华\), 17.4만m³ LNG선 발주 획득](#)
- [중국선급\(CCS\), 세계 최초 「선박 방역 안전 지침」 발간](#)
- [「중국 원양 해운 발전사」 발간](#)
- [COSCO SHIPPING그룹 산하 중국원양대학 칭다오에서 설립](#)
- [텐진해사국과 텐진항그룹 전략적인 협력 협의 체결](#)
- [상하이\(上海\)통상구, 1~5월 자동차 수출량 역성장](#)
- [칭다오항 동자커우\(董家口\)항 ‘대외개방’ 검수 통과, 칭다오항 2개 통상구](#)
- [다롄항, 167.65억 위안으로 잉커우항 흡수 합병](#)
- [장쑤성항만그룹 물류전자상거래 플랫폼 주요 부분 론칭](#)
- [탕산\(唐山\)항 2019년 항만물동량 세계 3위, 중국 최대의 철광석 수입항](#)
- [5G 자율운행트럭, 상하이 양산항에서 상업화 운영 개시](#)
- [옌타이항 최초의 선물교역창고 정식 승인](#)

해양 · 수산

- [남해구\(南海区\), 해양경제 고품질 발전의 새로운 길 모색](#)
- [광둥성, 해양생태 보호·복원을 위해 20억 위안 지원](#)
- [훈춘 해양경제발전시범구 건설 추진을 위해 해양경제 다자협력 모델 모색](#)
- [옌타이\(烟台\) 창다오\(长岛\), 전국 최초의 해양유형 국가공원 건설 계획](#)
- [10개 기업 협력으로 ‘칭다오시 해양바이오산업 연맹’ 설립](#)
- [산둥성 해양국 일련의 성급 해양의식 교육 시범기지 건설](#)
- [선전\(深圳\) 따핑신구\(大鹏新区\) 글로벌 해양중심도시 자원집적구 구축](#)
- [하이난성\(海南省\), 3.257억 위안의 국가 해양생태보호복원자금 획득](#)
- [광둥\(广东\)-광시\(广西\)-하이난\(海南\) 공동 범 집행 구역 설립](#)
- [자연자원부, 해상수색구조 예보 서비스 분야의 첫 번째 업계표준 발표](#)